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대책위의 사실 왜곡 중단을 촉구합니다

2022. 2. 25.

지난 12월 24일 동탄 물류센터 근무자가 두통 증상으로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하셨습니다. 회사는 동탄 물류센터 근무자의 사망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거듭 밝힙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대책위에서 허위와 왜곡된 사실을 통해 마치 고인의 죽음이 회사와 당시 주변 동료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며, 회사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했던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그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사실 왜곡을 즉시 중단해 주시길 바라며, 허위 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허위 주장   |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된 사실  |
|---|--|
| 119에 전화해달라 애걸 했지만 그 누구도 전화해주지 않았다. 증상 확인 후 30분만에 신고했다.    | 현장관리 직원 휴대폰 119 신고 기록, CCTV에 따르면, 고인이 두통 증상을 알린 직후부터 바로 곁에서 현장 직원들이 증상을 살폈고, 119 신고까지 13분이 소요 되었음. |
| 응급상황에서도 현장 관리자는 119 신고를 위해서는 사내 보고를 먼저 해야 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내부 보고 이후 119 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매뉴얼 없으며, 누구든지 즉시 신고 가능.   |
| 회사의 대처가 늦어져 병원 도착까지 한 시간 반이 소요되었다.                        | 119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근 병원 2곳에서 진료가 불가능하여 20km 떨어진 병원까지 이송함.   |
| 고인이 작업장에서 쓰러져 있다가 동료에 의해 발견되었다.                           | 고인이 스스로 두통 증상을 알렸음. 고인은 구급차 탑승 때까지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묻고 답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음.                              |
| 휴대폰이 없어 직원들이 신고를 못 했다.                                    | 고인은 본인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119에 신고한 직원도 본인의 휴대폰으로 신고했음. 또한, 현장에 비상 전화도 비치되어 있음.                        |
| 영하 8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였다.                                     | 고인은 실내 근무자로, 당시 근무 장소의 온도는 영상 14도로 측정되었음.  |
| '상하차' 등 과중한 육체노동에 시달렸다.                                   | 고인은 '상하차' 업무를 한 적 없으며, 주된 업무는 교육 담당임. 고인의 직전 12주 평균 근로시간은 33시간임.                                   |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mailto:media@coupang.com)